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48호 [루게 제24396호] 주제102(2013)년 12월 14일 (토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설계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설계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최룡해 동지,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특근대장 장정남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황병서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설계연구소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혁명사적물보존실을 돌아보시였다.

조선인민군 설계연구소는 지난 기간 4.25문화회관, 서해감문을 비롯한 수많은 대기념비적건

축물들을 일떠세우는데 크게 이바지한

관록있고 전통있는 설계연구기지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쟁이 한창이던 1953년 6월 인민군대의 설계기관을 창립할데 대한 귀중한 교시를 주시고 이곳 설계연구소의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현명하게 명도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설계연구소에서 작성한 중요대상들의 설계도면들과 모형사관들을 보여주시면서 설계를 잘한다는 높은 평가도 안겨주시며 유능한 설계집단으로 자라나도록 결심걸음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미립승마구락부를 비롯한 대기념비적건축물들의 설계를 조선인민



조선인민군 설계연구소에서는 설계일군대렬을 잘 꾸리는것과 함께 지도단위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당조직과 해당 지도단위에서는 설계일군들이 우리 당의 주체적건축사상과 건설정책으로 특히 무장하도록 정치사업을 짜고들며 그들의 사업조건, 생활조건을 원만히 풀어주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설계일군들의 시야를 넓히고 세계적인 건축발전추세를 잘 알수 있게 자료열람실을 현대적으로 더 잘 꾸려주는 것을 비롯하여 조건보장책도 따르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설계의 과학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자면 설

군 설계연구소에 맡겨주시고 설계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귀중한 사적물들과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보시면서 조선인민군 설계연구소가 걸어온 자랑스러운 행로를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설계연구소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일지만 보아도 우리 조국의 건설력사에 대해 잘 알수 있다고 하시면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건설령도업적은 부강조국건설의 만년재보로 길이 빛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설계연구소에 혁명사적교양실을

잘 꾸려놓고 일군들과 설계가, 건축가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명도업적을 깊이 새겨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당의 전국역사화방침과 사회주의문명국건설구상을 관철하는데서 조선인민군 설계연구소가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건설부문일군대감습이 진행되는 때에 이곳을 찾아왔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여러 설계실들을 돌아보시면서 설계연구소앞에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선군조선의 새로운 건설력사를 창조

하자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건설에서 오늘의 전성기를 대변영기로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조선인민군 설계연구소가 선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당에서 맡겨준 그 어떤 과업도 훌륭히 수행하자면 설계일군들이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건축설계안들을 내놓겠다는 높은 리상과 야심만만한 배짱을 가지는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설계일군들은 늘 머리를 쓰고 궁리를 많이 하며 자신의 실력을 부단히 높이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래야 당의 구상과 인민의 지향에 맞는 설계안들을 내놓을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계방법을 과학화하고 설계수단을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곳 설계연구소에 필요한 최첨단설계수단들을 자신께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설계연구소의 내외부를 문명국의 설계도를 그리는 기관답게 일신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설계연구소의 일군들과 설계가, 건축가들이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침으로써 당의 위대한 건설구상을 현실로 펼쳐나가는 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건설의 대번영기와 더불어 인민의 꿈 이루어지리라!

뜻깊은 2013년이 저물어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한없는 격 정속에 받아안고 발걸음도 힘차게 새해의 진군을 시작하던 때가 엇그제인듯싶은데 벌써 이해의 마지막달이다. 걸이온 날과 달들을 뒤돌아보는 우리의 마음속에 금치높이 어려오는 시대의 기념비들이 있다.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의 광장공원,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은하파라다이스,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 류경구강병원... 단 한해동안에 내 나라의 푸른 하늘아래 솟아오른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은 2013년이야말로 우리 조국역사에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건설의 최전성기를 힘있게 확인해주고있다. 건설의 최전성기!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안아온 이 자랑스런 력사의 기적을 가슴후담게 새겨볼수록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더욱 뜨겁게 갈마든다. 어버이장군님께서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조국의 자랑스런 현실을 보시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시랴. 우리 조국을 하루빨리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로 일떠세우시려 세력의 눈비를 그리도 많이 맞으신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안고 오늘도 당보지면에는 추억이든 한상의 사진문화를 정중히 모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경제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우리 나라를 새 세기 경제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우고 우리 인민들을 세상에 부럽없이 잘살게 하기 위하여 헌성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합니다.** 인민을 위한 길에 언제나 함께 계시며 창조와 건설의 불길높이 인민의 행복과 리상을 하나하나 꽃피워주시는 어버이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리들수록 가슴뜨거운 사연들이 어려웠다. 주체 100(2011)년 5월 28일이 었다. 력사적인 외국방문을 마치고 조국에 돌아오는 길로 선군조선의 불굴의 정신력과 혁명적기상이 내재하는 최첨발전소건설장소를 찾으신 어버이장군님께서 그동안 몰라보게 킨들 솟구친 발전소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못내 기뻐하시면서 하시던 그날의 말씀이 오늘도 정경처럼 울려오는데만 같다. 외국방문의 길에서 쌓인 피로가 순간에 다 풀리는 것 같다고 그리고도 만족해 하시던 어버이장군님, 얼마나 기쁘시었던 산성터에 새겨진 《단숨에》라는 글꼴과 하늘을 치솟으며 솟아난 연체를 배경으로 몇몇이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었다. 이 기념비적창조물에 비해 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총정의 세계가 너무나 가슴뜨겁게 어려우니 우리의 장군님 더욱 기뻐하셨던 아니었는가. 그러나 외국방문의 길에서 돌아오신 어버이장군님께서 만시름을 잊으시고 기뻐하시시는 모습을 보이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도 환히 웃으셨었다. 어버이장군님의 구상과 의도를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시며 그 길에서 다녔다는 보람과 기쁨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와 함께 걷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0(2011)년 8월

일떠세우실 불타는 열망으로 심장을 끓이시었으리라. 찬눈을 밝으시며 오래도록 건설장의 매 대상물들의 자그마한 세부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모습을 우리들처럼 지휘관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기하시고 판심하시던 대상들을 자그마한 손때에 완공함으로써 력사에 길이 빛날 기념비들로 내 조국을 다시 한번 천지개벽하시려는 그의 숭고한 뜻을 깨달았다. 그로부터 8달후

우리 당이 제시한 건축의 조형화, 예술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모든 대상물들을 실감이나게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한 평양민속공원을 돌아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 잘 꾸민대 대하여 당부하시든 그의 위구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으로 눈물을 적시었다. 위대한 건설의 최전성기를 안아온 대건설의 장엄한 첫 포성은 이렇게 이 땅위에 울렸다. 대동강에 꽃바구니마냥 두동실 떠있는

를라도도 우리 원수님의 그 뜨거운 총정과 인민사랑에 받들려 행복의 웃음꽃 사계절 피어나는 종합적인 유원지로 더욱 황홀하게 꾸러졌다. 때로는 건설중에 물미끄럼대의 정점까지 오르시어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기도 하시고 또 어떤 날에는 흠뻑 땀을 흘리며 건설장에 서서 인민들이 리용할 편의시설의 도안까지 종이위에 몸소 그려주시며 크나큰 로고를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었다.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주체 101(2012)년 4월 30일이 었던 뜻깊은 사연을 전하려고 한다. 그날 완공단계에 이른 룡라인민유원지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직 한 음성으로 룡라도에 건설하고있는 풍동어판과 유희장, 물놀이장은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더 훌륭한 문화정서생활 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관심하시던 대상이므로 자신께서는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주셨다고 천만사연을 담아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풍동어판의 불장식문제와 유원지를 찾아오는 인민들의 교통상편의 보장문제에 이르기까지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공사장을 언계면 끝낼수 있겠는가, 장군님께서 매일 판심하시던 대상인 데** 정말 최상급으로 잘해야겠다고 간곡히 이르시었다. 어버이장군님께서 판심하시던 대상이라고 기쁘게 들리시며 인민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훌륭한 문화휴식터로 손색없이 잘 꾸민대 대하여 당부하시든 그의 절절한 말씀에서 일군들은 장군님의 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 기울이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총정의 세계를 심장으로 걸갈하였다. 이런 열화같은 총정을 안으시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위대한 태양의 성스러운 축복속에 사람도 산천도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잠 못 드는 내 나라의 12월이다. 생산의 동음높이 올라오는 어느 일터에 가보아도, 두애산골의 마을 길을 걸어도 세월의 눈비를 다 맞으시며 한평생 애국, 애민의 거룩한 자국을 새기신 어버이 장군님의 모습이 뜨겁게 어려온다. 얼마나 강렬한 그리움과 추억이 내 나라의 곳곳에 스승처럼 깃들여 있는것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김정일 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승리자의 자랑과 긍지를 가지게 되었으며 높은 열매와 존엄을 온 세계에 떨치게 되었습시다.** 추억도 뜨거운 12월의 아침 우리는 김일성광장에 나섰다. 불멸의 존함과 더불어 그 이름 인민의 마음속에 친숙해져 때로부터 수령과 대중의 혼연일체의 화복을 수놓아 수놓아는 김일성광장, 열병행진대오의 힘찬 발걸음소리, 시위군중들의 우렁찬 환호소리 진감하던 이곳에 서있느니라 주석단의 높은 연단에 서서 손저우하시던 우리 장군님의 숭엄한 모습이 눈앞에 어려와 가슴은 세차게 뛴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오늘도

김일성광장의 높은 연단에 서서 환히 웃으신다. 광장의 주석단, 조선의 영광이 해빛처럼 쏟아지는 그 높은 단상을 우리들처럼 조신인민군 장군님 60돐경축 열병식장에 차란처럼 격정의 파도가 어제편 듯 일거였다. **「영웅적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것처럼 격정으로 가슴설레이게 하는 우렁우렁하진 음성으로 축복을 보내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들처럼 우리들처럼 미소에 함께 김일성광장을 보며 당당히 누비나간 우리의 영웅적 인민군대는 계속자의 자들의 온갖 책동을 선군의 총대로 무자비하게 쳐갈기면서 승리만을 펼쳐왔으며 우리 인민은 시련과 난관을 뚫고 창조와 비약의 한길로 줄달음쳐왔다. 선군의 길, 사회주의강성부흥을 위한 투쟁의 한길로 나아가는 신념의 대오에 언제나 태양의 축복을 보내주시는 우리 장군님, 이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뇌리에, 심장속깊이 새겨져있는 어버이장군님의 모습이다. 지금도 우리 장군님께서 저 높은 주석단의 연단에 태양의 모습으로 계시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따라 강성국가건설의 최우승리를 향하여 용기백배 나아가는 천만민들의 앞날을 손저우 축복해주시는 뜻깊은 선뜻 걸음을 옮기실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85돐, 조선인민군창건 65돐경축 열병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0돐경축 열병식 및 군중시위, 조선로동당창건 55돐경축 열병식과 군중시위, 조선로동당창건 60돐경축 열병식 및 군중시위,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 조선로동당창건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남기신 인민사랑의 이야기

우리 장군님의 락 주체 100(2011)년 12월의 첫 일요일이었다. 이날 찬바람부는 한겨울의 추위도 마다하지 않고 인민의 문화휴식터인 개신청년공원 유원지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일군에게 물으시며 개신청년공원 유원지의 관리운영정형을 직접 료해하러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유원지의 관리운영정세를 하나하나 알아보시며 인민들이 좋아하는지, 지금까지 사고난적이 없는지, 유원시설로 금은 얼마인가에 대하여 세세히 물으셨었다. 그때 일군은 유원지의 관리운영정세에 대하여 그토록 마음

을 들여 수집하신 자료 보시던 그이께 한 일군이 도서관이 새로 꾸러지다보니 자료가 많지 못하다고 말씀드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 신중히 안색을 지시하며 자료가 얼마나 되는가고 물으셨었다. 그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음악전도서관에는 창작가, 예술인들과 근로자들이 열람할수 있는 자료가 많아야 한다고 하시며 자신께서 지금까지 수집한 음악자료들을 다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었다. 순간 일군들은 크나큰 격정과 놀라움에 휩싸이였다. 분초를 쪼개가시며 혁명과 건설을 이끄시는 것처럼 바쁘신속에서 우리 장군님께서 수집하신 음악자료들을 통째로 인민들이 리용하도록 보내주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이였다. 일군들은 너무나 감격하여 뜨거운 격정을 삼키고 또 삼키며 생각하였다. (어찌하여 어버이장군님의 한생은 이토록 인민을 위해 자신을 강그러 다 바치시는 한신이어야 하며 우리 인민의 환신이어야 한단 말인가.)

웅대한 설계도에 깃든 사연

의 지덕체교양에도 이바지하고 또 오래 두고 기념할수 있는 선물로서 유원공원을 하나 꾸러볼까 하는데 동무의 생각은 어떤가고 말씀하시었다. 순간 일군은 놀라움을 금할수가 없었다. (나라의 정세가 극도로 긴장한 이런 때에 유원공원을 건설이라니?) 잠시 동안을 두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수령님께서도 이 미 오래전부터 수도시민들의 건강과 문화정신을 위하여 현대적인 유원공원을 꾸러질것을 구상하여 오셨었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일을 잘하지 못하다느니라 아직까지 수령님의 구상을 실현하지 못하였는데 이것이 가슴아

프다고 나직이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지난 해초부터 수령님께서 구상하시는대로 평양에 훌륭한 유원공원을 하나 꾸러질것을 결심하고 여러가지로 생각해보셨다고, 동무에게 다른 나라에 가면 그곳에 꾸러놓은 유원공원을 돌아보고 오라고 파업을 준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고 하시었다. 순간 일군의 가슴은 몽물했다. 일군의 머리속에는 한해전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다른 나라를 돌아보던 때의 일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때 일군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파업을 주신것이 다른 나라 도시에서 유원

희 망 념 친 나의 조 국 아

작사 차호근
작곡 안정호

랑만에 넘쳐 (♩=122)



1. 우 린 누 구 나-기쁨에 넘 쳐 눈 부 신 아 침-즐 겁 게 맞 네 바 라



는 꿈 이-눈 앞 에 꽃 피 래-일 도 즐 겁 게 맞 네 밝



고 -밝 아 라 우 리 사 는 곳 원 수 님-그 품 이 여 인



민 의-희 망-만 복 의 희 망 넘-치 는 나의 조 국 아

2. 눈비내려도 폭풍세차도 우린 누구나 두려움 없네
맞이할 승리 환하게 보여 웃으며 시련 헤치네
환희로워라 우리 사는 곳 원수님 그 품이여
인민의 희망 강국의 희망 꽃피는 나의 조국아

3. 은혜론 해빛 찬란한 별빛 만년대대로 눈부신 강산
세상에 없는 긍지를 안고 창창한 미래로 가네
위대하여라 우리 사는 곳 원수님 그 품이여
인민의 희망 번영의 희망 끝없는 나의 조국아



